

남녀 고등학생들의 하위유형별 비행발생의 관련성 파악 : 폭력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 혜 원 · 임 동 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이 기타 비행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폭력이 절도, 외박 및 가출, 유해약물경험, 유해업소출입, 학업부적응, 유해매체경험, 성비행과 갖고 있는 관련성을 밝히고, 이러한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하였다.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남녀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학업부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행영역에서 더 많은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은 절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지만, 폭력과 기타비행과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남자청소년의 폭력에 대해서는 절도, 유해업소출입, 학업부적응이 중요한 설명변인인 반면, 여자청소년의 폭력에 대해서는 학업부적응, 절도, 유해매체가 중요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동시다발적 비행에 관한 상담 장면에서의 유의점과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청소년폭력, 청소년비행의 동시발생

* 호서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청소년 비행의 발생현황과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에 대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청소년비행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그 중 폭력은 청소년비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행 유형이다.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는 비행에서 범죄로 넘어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성인사회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폭력을 포함한 비행 전체를 다루면서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각 유형의 비행들, 혹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비행 행위 각각을 분리시켜 다루어왔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이 항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비행의 전반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여러 유형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많은 경우 동시에 나타나거나 연속해서 나타나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원인으로 두 가지 문제행동이 유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행위와 성일탈의 문제행동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화, 2000). 현실 속에서 청소년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단 한가지의 비행만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도 기타의 비폭력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비행의 하위 유형 중 관계파악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 특히 폭력비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학교관련 문제행동을 함께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폭력청소년들은 낮은 학업수행 능력을 보이고, 무단결석을 자주하고,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다(Brier, 1995; Huizinga & Jakob-Chien, 1998; Maguin & Loeber, 1996).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폭력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학업성취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도가 비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폭력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권지은, 1998; 김장대, 1998).

청소년폭력은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나 학업능력의 결손과도 관계가 있다. 지속적인 품행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인지적 손상과 함께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Caspi & Moffitt, 1995; Maughan & Rutter, 1998).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결여 등으로 인해 낮은 IQ와 특히 언어능력 결여를 나타내고, 품행장애 아동은 집행기능(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위 인지적 기능)에서 결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밝혀진 바 있는데, 남·녀 고등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문성호(2002)는 폭력과 비폭력 비행 간에 유의한 결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응답자일수록 수업 빼먹는 행동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다른 변수들 보다 특히 학업수행 능력이 응답자들의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혹은 비폭력 비행을 저질러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춘화, 1999)에서도 폭력비행 청소년들은 비폭력비행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폭력은 유해물질 혹은 유해환경에 대한 잦은 접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이 동시에 음주나 흡연, 유해약물의 경험과 같은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력과 약물사용간의 관계를 검토한 실증적 연구들은 폭력과 약물사용의 중복정도나 관련성의 정도는 연구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폭력적 행동의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약물사용의 심각성도 증가한다고 보고한다(Fergusson, Lynsky & Horwood, 1996; Saner & Ellickson, 1996). Brooks 등(1996)이 실시한 20년간의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초기 동안의 약물 사용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 초기의 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알코올과 함께 약물사용은 폭력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표집된 고등학생(n=12,272)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한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의미 있게 높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문성호(2002)는 폭력적 행위에 관

여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행동(절도, 지각, 수업 빼먹기)과 함께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에도 많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의 폭력행동에는 자신의 음주, 흡연 뿐 아니라 또래의 약물사용 또한 중요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춘화, 1999)에서도 폭력비행의 청소년들은 비폭력 비행청소년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담배를 더 많이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는 약물사용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유해매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음란물과 폭력물을 더 많이 접촉하고 있었다. 또한 폭력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비폭력 청소년들에 비해 유해업소에 더 많이 출입하고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 2001b)이 일반 청소년, 일반청소년 vs. 위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두 연구 모두에서도 폭력가해행동을 많이 한 학생들일수록 각 성제나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과 유해약물 및 환경과의 관련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민희(2002)는 전국의 남·여 중고생 13,051명과 특수청소년(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1,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청소년과 특수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성인용 매체 이용과 폭력행사 경험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과 특수청소년 모두 성인용 매체를 접한 집단은 성인용 매체를 접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상에서의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매체가 청소년 폭력과 갖는 관련성은 간행물(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책 등), 비디오와 영화, 음란사이트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폭력은 가출과도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양종국과 김충기(2002)는 비행청소년들 중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교육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고 있는 8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비행집단(2회 이하의 입원집단)과 상습비행집단(3회 이상의 입원집단)간에 학교결석, 약물경험과 함께 가출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습비행집단은 저비행집단에 비해 학교결석이 많고 약물의 경험이 많고, 더 어린 나이에 가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비록 청소년폭력과 가출간의 단독적인 관련성을 밝히진 못하고 있지만 가출이 청소년비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춘화, 1999)에서는 폭력비행 청소년들은 비폭력비행 청소년에 비해 몇 가지의 비폭력비행(무단결석, 무면허 운전, 절도)과 함께 가출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토바이 훔쳐타거나 성비행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중·고등학생 854명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연구에서도 폭력가해행동을 많이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출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과 위탁청소년(쉼터와 교육청 위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두 집단 모두에게서 반복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b).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김경준, 2002)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청소년폭력과 기타비행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전국 남·녀 중고생 6,504명과 특수집단청소년(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68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예상과 같이 특수집단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가출 후 어떤 비행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술·담배(36.2%)의 경험 이외에도 폭력(20.8%), 절도(19.4%)의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흡연, 절도와 함께 폭력이 가출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폭력과 절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적은 연구들만이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둘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춘화(1999)의 연구에서는 폭력비행 청소년이 비폭력비행 청소년에 비해 몇 가지의 비폭력비행(무단결석, 무면허 운전, 가출)과 함께 절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성호, 2002)에서도 폭력적 행위에 관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불성실, 음주·흡연과 함께 절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854명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연구에서도 폭력가해행동을 많이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절도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과 위탁청소년(쉼터와 교육청 위탁)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두 집단 모두에게서 반복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b).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함께 조사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2001)에서는 일반청소년(중·고생) 858명과 일반비행청소년 146명, 공식적 비행청소년 324명을 대상으로 폭력과 기타비행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일반비행청소년이란 현재 중·고등학생 가운데 비행으로 인해 경찰에 잡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말하고, 공식적 비행청소년이란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중인 청소년을 말한다. 우선 3집단의 폭력비행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일반비행집단과 공식적 비행집단이 일반청소년집단에 비해 폭력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비행집단과 공식적 비행집단은 다른 비행과의 연관성에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행에 대해서는 일반비행집단의 경험이 많은 반면, 보다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공식적 비행집단의 경험이 더 많았다. 즉, 일반비행 청소년들은 폭행, 흥기소지, 상점절도, 사기, 공공기물파손, 타인소유 기물파손 경험이 3집단 중 가장 많았고, 공식비행 청소년들은 강도, 타인절도, 매춘의 경험이 3집단 중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폭력이 흥기소지, 사기, 기물파손과 함께 상점에서의 절도행위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 제시된 기존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폭력이 기타의 비행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즉 폭력청소년들은 기타 어떠한 비행을 동시에 경험하는가, 폭력비행과 기타비행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청소년비행을 몇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할 때 청소년폭력은 ‘폭력비행’으로 구분될 수 있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폭력비행이 기타의 비행(절도, 외박 및 가출, 유해약물경험, 유해업소출입, 학업부적응, 유해매체경험, 성비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폭력비행과 다른 비행들은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기 전체에 나타나지만, 특히 고등학교시기에는 폭력을 비롯한 여러 비행과의 관련성이 보다 공고화되는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집단 중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I. 연구대상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고등학생 600명(남학생 300명, 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자에 의해 학교에 설문지가 전달되었고, 연구보조자들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은 학급에서 설문내용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584부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반응을 제외한 547명(남자 275명, 여자 272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사례수/평균(비율/SD))

항 목		남 학 생	여 학 생	전 체
연 령		16.38세(0.798)	16.74세(0.577)	16.56세(0.719)
학 년	1 학 년	151명(54.91%)	25명(9.19%)	176명(32.18%)
	2 학 년	124명(45.09%)	247명(90.81%)	371명(67.82%)
거주지	서 울	184명(67.90%)	2명(0.74%)	186명(34.25%)
	경 기	87명(32.10%)	83명(30.51%)	170명(31.31%)
	충 청	0명(0%)	187명(68.75%)	187명(34.44%)
부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이하	40명(15.15%)	17명(6.34%)	57명(10.71%)
	고등학교 졸업	162명(61.36%)	142명(52.99%)	304명(57.14%)
	대학교 졸업	50명(18.94%)	87명(32.46%)	137명(25.75%)
	대학원 졸업 이상	12명(4.55%)	22명(8.21%)	34명(6.39%)
모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이하	54명(20.85%)	33명(12.31%)	87명(16.51%)
	고등학교 졸업	176명(67.95%)	187명(69.78%)	363명(68.88%)
	대학교 졸업	24명(9.27%)	45명(16.79%)	69명(13.09%)
	대학원 졸업 이상	5명(1.93%)	3명(1.12%)	8명(1.52%)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24명(9.27%)	22명(8.70%)	46명(8.98%)
	100-200만원	82명(31.66%)	70명(27.67%)	152명(29.69%)
	200-300만원	92명(35.52%)	93명(36.76%)	185명(36.13%)
	300-400만원	40명(15.44%)	45명(17.79%)	85명(16.60%)
	400만원 이상	21명(8.11%)	23명(9.09%)	44명(8.59%)
성적	최 상	19명(6.91%)	13명(4.89%)	32명(5.91%)
	상	40명(14.55%)	15명(5.64%)	55명(10.17%)
	중 상	98명(35.64%)	91명(34.21%)	189명(34.94%)
	중 하	72명(26.18%)	102명(38.35%)	174명(32.16%)
	하	33명(12.00%)	33명(12.41%)	66명(12.20%)
	최 하	13명(4.73%)	12명(4.51%)	25명(4.62%)
전 체		275명(50.27%)	271명(49.73%)	546명(100.00%)

II. 검사도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연령, 가정의 월평균 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거주지역, 성적을 조사하였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5항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의 4항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적은 자신의 평균적인 성적에 관한 질문으로 최하(最下), 하(下), 중하(中下), 중상(中上), 상(上), 최상(最上)의 6항목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2. 비행경험

응답자의 비행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8개의 비행항목에 대해 총 73문항을 질문하였다. 비행경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조사결과들에서 도출된 청소년 비행의 하위내용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는 폭력(13문항), 절도(8문항), 외박 및 가출(2문항), 유해약물경험(10문항), 유해업소 출입(10문항), 학업부적응(7문항), 유해매체 경험(12문항), 성비행(10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의 영역별 신뢰도는 폭력 $\alpha=.905$, 절도 $\alpha=.634$, 외박 및 가출 $\alpha=.631$, 유해약물경험 $\alpha=.830$, 유해업소출입 $\alpha=.774$, 학업부적응 $\alpha=.752$, 유해매체경험 $\alpha=.921$, 성비행 $\alpha=.885$ 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III. 결과분석

8가지 비행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비행에 대한 집단별 경험정도와 집단 간 평균비교를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비행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폭력과 기타비행과의 관계 및 폭력에 대한 기타비행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집단과 남·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비행을 예언변인으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분석은 stepwise방식을 사용하였다.

[결 과]

I. 남녀청소년들의 비행경험

<표 2> 남녀 청소년들의 폭력과 기타비행의 집단간 평균비교(평균(SD))

	전체 (n=547)	남 (n=275)	여 (n=272)	t-test
폭력	1.282(0.439)	1.389(0.536)	1.174(0.274)	5.89***
절도	1.050(0.170)	1.071(0.225)	1.029(0.079)	2.98**
외박, 가출	1.183(0.446)	1.205(0.468)	1.161(0.422)	1.15
유해약물경험	1.149(0.221)	1.178(0.256)	1.119(0.173)	3.17**
유해업소출입	1.296(0.428)	1.371(0.504)	1.220(0.318)	4.22***
학업부적응	1.699(0.497)	1.656(0.530)	1.742(0.457)	-2.03*
유해매체경험	1.562(0.739)	1.881(0.843)	1.240(0.419)	11.29***
성비행	1.134(0.362)	1.203(0.440)	1.065(0.242)	4.54***
전체	1.304(0.291)	1.339(0.336)	1.207(0.193)	8.15***

* p < .05 ** p < .01 *** p < .001

8가지 항목의 비행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집단에서는 응답자들은 학업부적응과 유해매체경험을 다른 비행에 비해 가장 많이 경험하고, 다음으로 유해업소출입과 폭력경험을 비슷하게 중간정도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도와 외박·가출, 유해약물경험, 성비행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비행의 전체 평균은 1.304로 나타나 제시된 비행항목들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와 “어쩌다 한번 그랬다”의 중간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유해매체경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업부적응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어 폭력은 유해업소출입의 경험과 유사하게 남학생들이 많이 경험한 비행이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달리 학업부적응의 경험이 다른 비행경험에 비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해매체경험과 유해업소출입의 경험이 많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외박 및 가출을 제외한 모든 비행항목에서 남·녀 청소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폭력, 절도, 유해약물경험, 유해업소출입, 유해매체경험, 성비행을 많이 하고, 반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업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영역의 비행전체에 대한 평균에서도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II. 폭력비행과 비폭력비행 간의 관계분석

1. 상관관계분석

<표 3> 남녀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비행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연령	-												
2.소득	.012 ⁰ -.054 ^a .081 ^b	-											
3.부학력	.052 -.008 .015	.266*** .201** .333***	-										
4.모학력	.056 .037 .005	.249*** .178** .322***	.601*** .632*** .543***	-									
5.성적	-.100 ^a -.110 -.015	.155*** .074 .260***	.151*** .101 .272***	.111 ^a .107 .147	-								
6.폭력	-.033 .071 -.086	.017 .064 -.034	.004 .064 .043	.033 .071 .060	.161*** .107 .228***	-							
7.절도	-.070 -.017 -.137	-.063 -.065 -.061	-.023 .030 -.090	-.033 .028 .051	-.016 -.049 .021	.486*** .497*** .374**	-						
8.외박,가출	.029 .111 -.062	-.036 .040 -.117	-.090 ^a .026 -.217***	-.026 .049 -.105	-.056 -.055 -.071	.276*** .299*** .243**	.335*** .365*** .346***	-					
9.유해약물	.058 .139 ^a .006	-.024 .022 -.079	-.058 .031 -.137 ^a	-.004 .041 -.037	-.054 -.074 -.063	.424*** .458*** .269**	.464*** .503*** .331***	.491*** .508*** .470***	-				
10.유해업소	.046 .165*** -.059	.041 .143 ^a -.096	-.055 .030 -.115	.041 .084 .009	-.022 -.033 -.062	.435*** .433*** .347**	.274*** .272*** .229**	.536*** .568*** .503***	.702*** .691*** .706***	-			
11.학업 부적응	-.012 -.034 -.035	.012 .011 .006	.070 .086 .018	.031 .027 .014	.016 -.012 .080	.347*** .365*** .454***	.261*** .297*** .289***	.325*** .366*** .285***	.297*** .286*** .366***	.417*** .428*** .479***	-		
12.유해매체	-.119** .041 -.103	-.047 -.025 -.047	-.074 -.016 .082	.025 .065 .146 ^a	.019 -.113 .157	.326*** .227*** .351***	.278*** .263*** .192*	.119** .085 .177*	.323*** .303*** .287***	.345*** .254*** .462***	.224*** .238*** .448***	-	
13.성비행	-.023 .041 -.061	.039 .077 .002	.000 .039 .041	.077 .101 .111	.003 -.020 -.014	.415*** .435*** .215*	.417*** .432*** .290***	.319*** .397*** .175*	.507*** .608*** .194*	.493*** .575*** .189*	.295*** .340*** .293***	.374*** .346*** .271***	-

O전제, a남, b여,

* p <.05 ** p < .01 *** p <.001

남녀 및 전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비행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비행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간의 관계보다는 비행변인들 간의 관계가 보다 더 많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들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부모의 학력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더 많은 월평균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학력은 모의 학력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성적은 가정의 환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학생에게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비행변인간의 관계에서는 각 비행항목이 각기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성적과만 유의하고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전체집단과 여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는 연령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고, 여학생들의 경우 어릴수록 절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박과 가출은 아버지의 학력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전체집단과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외박이나 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약물의 경험은 연령과 부학력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남학생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유해약물을 많이 경험하고, 여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해약물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해업소출입은 연령과 소득과 관련이 있어, 남학생들의 경우 연령이 높고 가게의 소득이 많을수록 유해업소에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부적응은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냈다. 유해매체의 경험은 연령과 모학력, 성적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전체집단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유해매체를 많이 경험하지만 남·여 집단의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성적이 높을수록 유해매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행도 어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행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

다음으로, 8개의 비행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 개의 관계 쌍(남학생의 유해매체경험 vs. 외박·가출의 경험)만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

서 정적이고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상관계수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컸다. 특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폭력 vs. 절도, 폭력 vs. 유해업소출입, 절도 vs. 유해약물경험, 외박·가출 vs. 유해약물경험, 외박·가출 vs. 유해업소출입, 유해약물 vs. 유해업소출입, 유해업소출입 vs. 학업부적응의 관계에서였다. 특히 유해약물경험 vs. 유해업소출입의 관계는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70정도의 관계를 보여(남학생 $R^2=.691$, $p<.001$; 여학생 $R^2=.706$, $p<.001$) 남·녀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술·담배를 포함하는 기타의 유해약물을 거의 대다수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비교적 적은 관계를 나타낸 것은 폭력 vs. 외박·가출, 절도 vs. 유해업소출입, 절도 vs. 학업부적응, 절도 vs. 유해매체경험, 외박·가출 vs. 유해매체경험 등의 관계에서였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인 폭력과 기타비행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남학생들의 폭력은 절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유해약물경험, 성비행, 유해업소출입과 비교적 큰 관련성을 보인 반면, 학업부적응, 외박·가출, 유해매체경험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여학생들의 폭력은 학업부적응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절도, 유해매체경험, 유해업소출입과 중간정도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유해약물경험, 외박·가출, 성비행과는 비교적 낮은 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남·녀의 집단에서 비행들 간에 비교적 큰 상관계수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남학생의 경우는 폭력과 절도를 많이 할수록 유해약물을 많이 하고, 절도, 외박·가출, 유해약물 경험, 유해업소의 출입이 많을수록 성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경험들에서 유의한 관계는 나타났지만 남학생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적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특히 유해약물경험 vs. 성비행의 관계에서는 남·여 집단의 차이가 아주 커서(남학생 $R^2=.608$, $p<.001$; 여학생 $R^2=.194$, $p<.001$), 여학생들과 달리 남학생들의 성비행은 유해약물의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유해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유해업소출입의 경험이 더 많고 학업부적응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폭력비행과 기타비행이 갖는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델에는 전체집단과 남자, 여자 집단 각각에 대해 폭력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비행들을 예언 또는 설명변인으로 두었다.

<표 4> 남녀 청소년들의 폭력비행에 대한 기타비행의 회귀분석결과

집단	예측변인	β	R^2	ΔR^2	F-change
전체 (n=546)	절도	.237	.237	.237	169.41***
	유해업소출입	.098	.335	.098	80.57***
	학업부적응	.014	.349	.014	11.94***
	유해매체경험	.011	.360	.011	9.33**
	성비행	.006	.367	.007	5.81*
남자 (n=274)	절도	.247	.247	.247	89.58***
	유해업소출입	.095	.342	.095	39.67***
	학업부적응	.014	.357	.015	5.99*
여자 (n=271)	학업부적응	.207	.207	.207	70.46***
	절도	.064	.271	.071	23.74***
	유해매체경험	.021	.293	.022	8.24**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들의 폭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집단에서는 절도, 유해업소출입, 학업부적응, 유해매체경험, 성비행의 5가지 비행이 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청소년폭력 전체 분산의 약 37%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외박·가출, 유해약물경험은 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5가지의 기타비행 중 절도는 폭력에 대해 가장 커다란 설명력을 보여 폭력 전체 분산의 약 24%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응답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7가지의 기타 비행 중 절도, 유해업소출입, 학업부적응의 3가지 비행이 폭력비행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학생 폭력 전체 분산의 약 36%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도의 설명력이 가장 커, 남학생폭력 전체분산의 약 25%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업부적응, 절도, 유해매체경험의 3가지 비행이 폭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학생폭력 전체분산의 약 30%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비교하여 절도의 설명력이 확연하게 적은 반면 학업부적응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약 21%), 유해업소출입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유해매체경험이 폭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청소년폭력이 기타의 다른 비행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즉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이 폭력 외의 어떤 다른 비행을 동시에 경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련성이 남자,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폭력을 포함한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들

의 더 많은 비행경험을 보여준 기존의 연구결과들(폭력예방재단, 1996;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학업부적응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교사나 상담자들의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폭력과 기타 비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도의 관련성이 가장 두드러져서 폭력을 많이 하는 남·녀 청소년들은 동시에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폭력과 절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이춘화, 1999; 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2001)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비행과의 연루가능성보다 절도의 행위에 개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폭력과 기타 비행과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있어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유해약물경험, 성비행, 유해업소출입이 절도에 이어 폭력행위와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폭력과 학업부적응과의 관계가 가장 커서 절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 남자청소년들과 대조를 보였다. 학업부적응에 있어서는 절도, 유해매체경험, 유해업소출입이 여자청소년의 폭력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폭력에 대해서는 절도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다음으로 유해업소출입과 학업부적응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청소년의 폭력에 대해서는 학업부적응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다음으로 절도와 유해매체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비행의 동시발생이나 비행들 간의 관련성을 직접 다룬 선행연구, 특히 국내연구는 극히 적은 상태이다. 더욱이 이에 대해 남녀 청소년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여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비행들 간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시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제시하였듯이), 청소년폭력은 다른 비행들보다 학업실패 및 학교중퇴,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 경험, 가출, 절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

다(예: 김준호, 노성호, 오수정 및 장은숙, 1991; Salts, Lindholm, Goddars 및 Duncan, 1995; Sommers와 Baskin, 1994). 반면 청소년비행의 또 다른 주요유형인 성비행과의 관련성은 두드러지게 지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폭력과 절도,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경험의 동시성은 기존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폭력과 성비행과의 관련성이 거의 지적되지 않은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비행 또한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한 보다 풍부한 자료가 축적될 때 청소년 비행의 동시발생에 관한 보다 뚜렷한 윤곽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청소년비행이 하위항목들 간에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고 특히 몇 가지 유형의 비행들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비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각 비행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현황, 원인, 대책마련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폭력과 비폭력비행 간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공통의 예측요인들이 청소년 폭력과 비폭력 비행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문제를 그 하나로 국한시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폭력, 나아가 청소년비행의 문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데 있어 큰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는 청소년폭력의 문제를 기타의 비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하고 그 구체적인 관련 정도나 관련유형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청소년비행을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상담프로그램의 마련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폭력과 기타비행과의 관련성, 나아가 청소년들의 동시다발적 비행발생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특히 남·녀 청소년들의 결과를 따로 제시함으로써 각 집단의 비행에 대한 지도와 상담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지역과 연령이 편중되어 있고, 비행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에 더욱 세밀한 연구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준(2000).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 실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 발표 및 토론회 자료.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 김기현(2000). 청소년문제의 변화와 청소년 운동의 방향. 오늘의 청소년 2000년 9월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장대(1998).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태, 임은미, 이향림(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5.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준호, 노성호, 오수정, 장은숙(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선애(2000).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2000).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 문성호(2002). 청소년폭력과 비폭력 비행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45-162.
- 문화관광부(2000). 2000년 청소년백서.
- 민하영(1992). 청소년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영신, 김의철(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배임호(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 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1). 가족과 청소년비행.
- 심용철, 양돈규(1999). 학생청소년의 비행경향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 양종국, 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 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2.
- 이민희(2002).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 발표 및 토론회 자료.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민희, 이명숙, 정희욱, 이춘화(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1999). 청소년폭력 가해자와 가해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성호(2000).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폭력은 싫어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 Brier, N. (1995). Predicting anti-social behavior in youngsters displaying poor academic achievement: A review of risk factor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6, 271-276.
- Caspi, A., Elder, G. H. Jr., & Bem, D. J.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08-313.
- Caspi, A. & Moffitt, T. E. (1995). The continuity of maladaptive behavior: From description to understanding in the study of antisocial behavior.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Donovan, J. E., Jessor, r., & Costa, F. M. (1991).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conventionality-unconventionality: An extens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Health Psychology*, 10, 52-61.
- Gottfredson, D.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arrington, D. P. (1995).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Key finding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929-964.
- Fergusson, D. M., Lynskey, M. T., & Horwood, L. J. (1996). Factors associated with continuity and changes in disruptive behavior patterns betwee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533-553.
- Hawkins, J. D., Catalano, R. F.,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uisinga, D, Jakob-Chien, C. (1998). The contemporaneous co-occurrence of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ing and other problem behaviors.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el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Jenkins, R. L. & Gowdey, E. B. (1981). Prediction of Violenc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Jessor, R. & Jessor, S.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10.
- Liska, A. E. & Reed, M. D. (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547-560.
- Maguin, E. & Loeber, R. (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In M. Tonry(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ughan, B. & Rutter, M. (1998).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In T. H. Ollendick & R. J. Prinz(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20). New York: Plenum-Press.
- Olweus, D. (1996).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 Robins, L. N., Murphy, G. E., Woodruff, R. A. Jr., & King, L. J.

- (1971). The adult psychiatric status of black school boy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338-345.
- Roff, J. D. & Wirt, R. D. (1984).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as antecedents of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111-126.
- Salts, C. j. Lindholm, B. W. Goddard, H. W., & Duncan, S. (1995). Predictive variables of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t males. *Youth & Society*, 26(3), 377-399.
-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 94-103.
- Selman, R.L., Schultz, L. N., Nakkula, M., Barr, D., Watts, C., Wichmond, J. (1992). Friendship and fighting: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study of risk and prevention of viol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9-558.
- Stanger, C., Achenbach, T. M., & Verhulst, F. C. (1997). Accelerated longitudinal comparisons of aggressive versus delinquent syndr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43, 58.
- Thorlindsson, T. & Vilhjamsson, R. (1991). Factors related to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abuse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26, 399-418.
- Warr, M. (1993b). Parents, peers, and delinquency. *Social Forces*, 72(1), 247-264.
- Yamaguchi, K. & Kandel, D. (1987). Drug use and other determinants of premarital pregnancy and its outcome: A dynamic analysis of competing life ev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57-270.

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Numerous Types of Delinquencies among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im, Hye-Won · Lim, Dong-Hoon *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iolent and other delinquencies, and to comp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For these purposes, six-hundred male and female adolesc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which questions abou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experiences of eight types of delinquencies(violence, theft, leaving home, entering to harmful stores, non-adaptation of studying, experiences of harmful media) were explored. Results showed that male adolescents, compared to female participants, had more experiences in most types of delinquencies, excepts leaving home, non-adaptation of studying. Although violence was related most highly to theft, th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types of delinquencies differed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Results of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ft, entering to harmful stores, non-adaptation of studying were the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male adolescents' violences, whereas non-adaptation of studying, theft, experiences of harmful media were the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female adolescents' violences.

Key Words : adolescents, violence, delinquencies

투고일 : 5월 12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Hoseo University